

광주FC-전북 모두 웃지 못한 '무승부 혈투'

엄원상 멀티골... 난타전 끝 3-3 수비수 홍준호 4년여만에 골맛 전남도 경남과 홈경기 2-2 비겨

모두가 웃지 못한 '무승부 혈투'였다. 광주FC는 지난 1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와 2020 K리그1 20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19라운드 울산현대전에 이어 연달아 '우승후보'와 상대한 광주는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울산전을 1-1로 마무리했던 광주는 전북과는 무려 3골씩을 주고받으며 숨 막히는 3-3 승부를 펼쳤다. 엄원상은 이날 두 골을 넣어 경기 MVP에도 선정됐다. 경기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마주한 전북 조제 모라이스 감독, 광주 박진섭 감독 그리고 멀티골 주인공 엄원상 등 세 사람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물론 갈 길 바쁜 모라이스의 감독의 표정이 좋았지 않았다. 전북은 최근 2연패로 우승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선두 울산과는 승점 5점 차. 광주에 이어 바로 15일 울산과의 맞대결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전북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였다. 하지만 전반 5분 만에 엄원상에게 선제골을 내주는 등 고전을 한 '골리앗' 전북은 '다윗' 광주에 울

시즌 최다실점을 기록하며 어렵게 승점 1점을 추가했다. 모라이스 감독은 "화요일 울산전을 미리 생각할 상황은 아니었다. 광주전에 맞춰 전술을 짰고 준비했다"고 광주전에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못했고 "운동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가 추구한 패스 플레이를 하지 못해 아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8월 광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이어지면서 광주전용구장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경기의 변수로 작용했다. 하지만 양 팀 선수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경기했다. 패장 입장이 된 모라이스 감독에 이어 박진섭 감독이 인터뷰실에 들어왔다. 우승후보들을 상대로 연달아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과시했지만 역시 표정이 좋지 못했다. K리그1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 감독은 '원정 승점, 안방 승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날도 박 감독은 세 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공격에 사용했다. 엄원상의 스피드로 전북의 뒷공간을 허문 뒤 펠리페를 투입해 완벽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계산이었다. 발목 통증 탓에 엄원상을 예상보다 이른 후반 16분 김효기와 교체한 박 감독은 3-3으로 맞선 후반 30분 펠리페에 이어 후반 42분 마르코를 넣어 '결승골'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 막판 펠리페의 두 차례 헤더가 골대 맞고 또 살짝 비껴가면서 아쉽게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박 감독은 "요즘 계속 난타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홈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공격적으로 했는데 또 비가 되게 아쉽다"며 "강팀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을 못 짓는 부분에서 아쉽다.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4년 만에 골을 기록한 홍준호와 함께 멀티골로 3-3 무승부를 이끈 엄원상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 자신 있게 하라는 감독님의 메시지가 선수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다. 다들 열심히 응원하고 뛰어서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다"면서도 "득점 찬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살렸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형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이야기했다. 2-2로 맞선 후반 3분이 엄원상이 말한 순간이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엄원상은 마지막 수비수였던 김보경을 피해 슈팅까지 날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비껴났다. 후반 15분 임민혁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며 두 번째 골에는 성공했지만 엄원상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 됐다. 한편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28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전남이 3분 뒤 김현욱의 페널티킥으로 다시 맞붙을 놓았다. 후반 30분에는 줄리안이 골을 넣으면서 팀 통산 1100호골 주인공도 됐다. 하지만 전남이 후반 40분 다시 페널티킥으로 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는 2-2로 끝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엄원상이 12일 전북현대와의 K리그1 20라운드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1골 1도움... 황희찬 라이프치히 데뷔전 '펄펄'

팀 3-0 완승 이끌어

황희찬이 독일프로축구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첫 공식 경기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의 완승을 이끌었다. 황희찬은 지난 12일 열린 뉘른베르크(2부)와의 2020-2021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64강) 원정 경기에서 후반 45분 3-0 승리를 매듭 짓는 쐐기골을 터뜨렸다. 그는 앞선 후반 22분에는 유수프 포울센의 추가 골을 어시스트해 1골 1도움을 올렸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맹활약하다 7월 독일 분데스리가의 '신흥 강호' 라이프치히로 옮겨 박리그에 진입, 이날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나섰다. 선발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간 나겔스만 감독의 선택을 받은 그는 전반 결승골 과정에 관여하고, 후반에는 측면으로 옮겨 도움과 골을 잇달아 기록해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황희찬은 2부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 임대됐던 2018년 12월 정규리그 경기에서 잉골슈타트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은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독일 무대에서 골 맛을 봤다. 라이프치히의 황희찬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승리하고 포칼 2라운드에 진출했다. 라이프치히의 '11번' 유니폼을 입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황희찬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진 아마두 에다라의 첫 골에 관여했다. 상대 골키퍼 크리스티안 마테니아의 키를 크리스토퍼 에쿠쿠가 끊어낸 것이 흐르자 황희찬은 페널



라이프치히 황희찬이 12일 독일 뉘른베르크의 막스-모르로크-슈타디온에서 열린 뉘른베르크(2부)와의 2020-2021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64강) 원정경기에서 힘차게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 지역 오른쪽을 돌파한 뒤 슈트를 시도했다. 이때 골키퍼 맞고 튀어나온 공을 황희찬은 마르셀 자비처에게 킥백으로 내줬고, 자비처의 패스를 에다라가 오른쪽 슈트로 연결해 골문을 열었다. 나겔스만 감독은 후반 14분 은쿠쿠를 포울센으로 교체하며 황희찬을 측면으로 보내 다양한 포지션에서 지켜봤다. 장신 센터백 아스게르 쇠렌센(191cm)에게 다소 고전하던 황희찬은 좌우 측면을

오가며 한층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후반 22분 그는 에밀 포르스베리의 침투 패스를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받아 뒤편에 자리 잡은 포울센에게 정확하게 연결해 추가 골을 끌어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은 황희찬은 후반 45분 득점포까지 가동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페널티 지역 혼전 상황에서 뒤로 불이 흘렀고, 황희찬은 놓치지 않고 왼발 슈트를 꽂았다. /연합뉴스

프랑스 2부리그 석현준 페널티킥 결승골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석현준이 새 시즌 3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고 팀 승리를 이끌었다. 석현준은 13일 프랑스 트루아의 스타드 드 로브에서 포FC와 치른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2 3

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37분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승골을 기록했다. 트루아가 페널티킥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석현준이 오른발로 과감하게

골문 한가운데로 차넣었다. 석현준의 이번 시즌 첫 골이다. 석현준은 프랑스 1부리그 스타드 랭스에서 뛰다 올해 초 전 소속팀이었던 트루아 유니폼을 1년 반 만에 다시 입었다. 이날 석현준은 72분 동안 활약한 뒤 후반 27분 교체됐다. 트루아는 후반 42분 레니 핀토르의 쐐기골을 보태 2-0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오사카, US오픈 테니스 제패

아자란카에 2-1 역전승...아시아 선수 첫 메이저 3승



13일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오사카 나옴이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사카 나옴이(9위·일본)가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여자 단식 패권을 2년 만에 탈환했다. 오사카는 13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빅토리아 아자란카(27위·벨라루스)에게 2-1(1-6 6-3 6-3) 역전승을 거뒀다. 2018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오사카는 2019년 호주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00만달러(약 35억 6000만원)다. 이로써 오사카는 남녀를 통틀어 아시아 국적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3회 우승을 달성했다. 오사카 이외에 아시아 국적 선수로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오른 선수는 2011년 프랑스오픈과 2014년 호주오픈 여자 단식 우승자 리나(은퇴·중국)가 유일하다. 오사카는 아버지가 카리브해에 있는 아이티 출신이고, 어머니는 일본 출신인 혼혈 선수다. 또 오사카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 성적 3전 전승을 기록한 통산 다섯 번째 선수가 됐다. 이미 은퇴한 선수들인 버지니아 웨이드(영국), 모니카 셀레스, 린지 대븐포트, 제니퍼 캐프리아티(이상 미국)가 오사카에 앞서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전 전적 3전 전승을 달성했다. 최근 사례는 2002년 호주오픈의 캐프리아티였다. 현역 선수 중에 메이저 대회 단식 3회 이상 우승한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23회), 비너스 윌리엄스(7회·이상 미국), 킴 클레이스터르스(4회·벨기에), 안젤리크 케르버(3회·독일) 등 오사카까지 5명이 전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통산 네 번째 '엄마 메이저 킴' 등극을 노렸던 아자란카는 최근 11연승을 이어가는 중이었으나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US오픈 통산 세 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창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뉴 유턴트
3관	오! 문희
4관	오! 문희
5관	기괴괴괴 성형수
6관	기괴괴괴 성형수
9관	테넷, 고스트 오브 워
7관 씨네카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
8관 씨네카를	에이바, 테스와 보낸 여름 반요: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 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